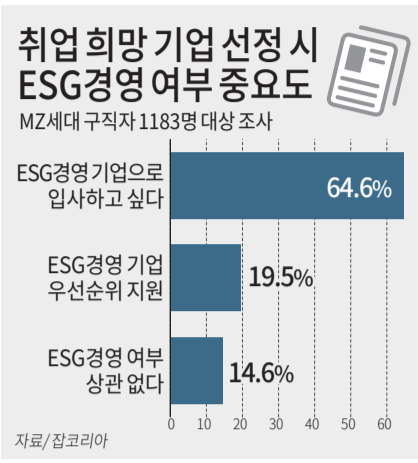


캠퍼스도 ESG 바람... 대학은 학과 신설, 학생은 취업 고려

ESG 과정 신설 등 커리큘럼 증가
MZ세대 구직자 10명 중 6명
ESG 경영, 입사지원 중요 요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대학가도 커리큘럼을 추가하는 등 ESG에 집중하고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치로 두는 경영 전략이다. 각 기업을 넘어 정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인재 수요가 늘어나자 대학가도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주요 대학만 살펴봐도 학부 수업 내 ESG 과목 추가, 대학원 내 ESG 과

정 신설 등 관련 커리큘럼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고려대는 학부·대학원생 대상으로 ESG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단국대·우석대 등은 ‘ESG 경영’ 관련 석사 과정을 신설했다.

대학생들의 ESG 기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이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

인 잡코리아의 ‘기업의 ESG 경영 여부가 MZ 세대 구직자들의 입사 희망 기업을 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MZ 세대 구직자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기업 취업선호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왕이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가 64.6%에 해당한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가 MZ 세대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율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데도 ESG 경영활동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희(한동대3)씨는 “SDGS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기업이 앞장서 ESG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일하는 기업이 ESG 경영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 될 것이기에 해당 기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ESG 전문가 수요도 다수 주목된다. 최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인 ‘B C(Business&Campus) 투어’에서 “LG화학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친환경 지속 가능 비즈니스, 전지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인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세상에 없던 혁신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은 여러 분과 같은 인재들을 통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100개사 가운데 68곳이 ESG경영 실천을 위

해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대한민국 ESG 클럽’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ESG 경영에 대해 학생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본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던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며 “특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주제인 만큼 체계적으로 배워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다만 ESG의 방향성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별 노력의 일환인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사회 운동으로써의 일방향을 강요한다든지의 방향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돌봄확대’ 분위기 속 현장은 “실효성 글썽” 공익법인 연수,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

서울교육감 후보들 일제 공약
돌봄교육 질 보단 확대에 집중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대립’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방과 후 돌봄 확대 공약을 내세우면서 교사·돌봄전담사들의 노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돌봄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현장은 돌봄 확대 공약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돌봄 공약을 살펴보면 돌봄 시간 및 지역 확대, 별도 기관 신설 등으로 ‘돌봄의 질’ 개선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돼 있다. 이에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특히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는 것이다. 돌봄 업무가 늘어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이 펼쳐져 업무가 가중됐다는 게 이 이유다.

대다수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 권한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서다.

반대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며 팽팽하게 대립한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운영권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위탁이다. 민간 위탁으로 돌봄 업무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행정,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이다.

2020년에도 전국 돌봄전담사 600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6000명은 전국 돌봄전담사 절반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인 돌봄 정책은 이전부터 교사·돌봄

전담사들 사이에서 뼈격거리이 존재했다. 교육계의 난제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서 돌봄교실 운영권, 업무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는 어렵다. 돌봄 정책의 주축인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의 고충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의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 후 학교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간에 아동의 흥미, 경험, 발달 특성, 학습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를 토대로 발전적 형태의 학습 자극 부여가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사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코로나 이후 첫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공익법인(1012개) 임원 및 사무 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인 운영의 공익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2년 공익법인 관계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익법인 관계자 연수를 영상자료 제작·배포를 통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대면 강의다.

교육내용은 ▲공익법인 운영 일반 ▲공익법인 실무 ▲개정세법과 회계처리다. 공익법인의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전문가 3인의 구체적인 사례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제작한 2022년 공익법인 업무편람 ‘공익법인 완전정복’ 핸드

북을 배포한다. 이는 업무담당자가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실무 내용 숙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작됐다. 공익법인 인허가 및 행정처분 개정내용, 법인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자주 묻는 질문과 실태조사 지적사례로 구성된 실질적인 업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수 외에도 2개팀 11명이 공익법인을 지역별로 전담해 예·결산서 검토를 통한 회계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익법인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및 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기대하며 공익법인이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이영우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장학금 1억 (한길통상)

“향학열 높은 학생들에 보탬 되길”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달 24일 이영우 한길통상 회장(72,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8)이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영우 회장은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2017년부터 ‘한길 장학금’을 통해 꾸준히 보내온 성원에 이어 다시 한번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이 회장은 향학열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외대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이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탁 소회를 밝혔다.

어학과 경영학에 몰두한 학창 시절을 회고한 이 회장은 “사회에 진출해 무역과 통상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토대는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지금의 글로벌 통상 무역 전문가가 되는 길에 외대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고



(왼쪽부터)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이영우 한길통상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모교 한국외대에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한국외대

덧붙였다.

이영우 회장은 1983년 한길통상을 창업, 현재 해외 과학기기와 각국에서 생산되는 유명 브랜드의 도자기 주방용품, 가정용품 등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과학 장비는 미국 솔라라이트, 네덜란드의 킵&조너스 등과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학생마을 디자이너 사업’ 운영

대학 쪽문 옹벽 환경개선 진행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지원센터는 지난달 9일 학생마을 디자이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학생마을 디자이너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마을 디자이너 사업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다. 학생들이 주도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사업실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보행환경과 안전하지 않은 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세종대 쪽문 옹벽의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6명의 세종대 학생들이 참여해 데이

터팀과 디자인팀으로 나눠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옹벽에 벽화 도안을 디자인한다.

키워드는 행복과 미소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조성으로 ‘Sejong Smile Street(세종 미소 거리)’ 테마 거리를 조성한다. 온·오프라인 주민참여 설문 결과를 활용해 디자인 벽화거리와 포토존의 콘셉트를 디자인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글귀가 벽화에 기록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